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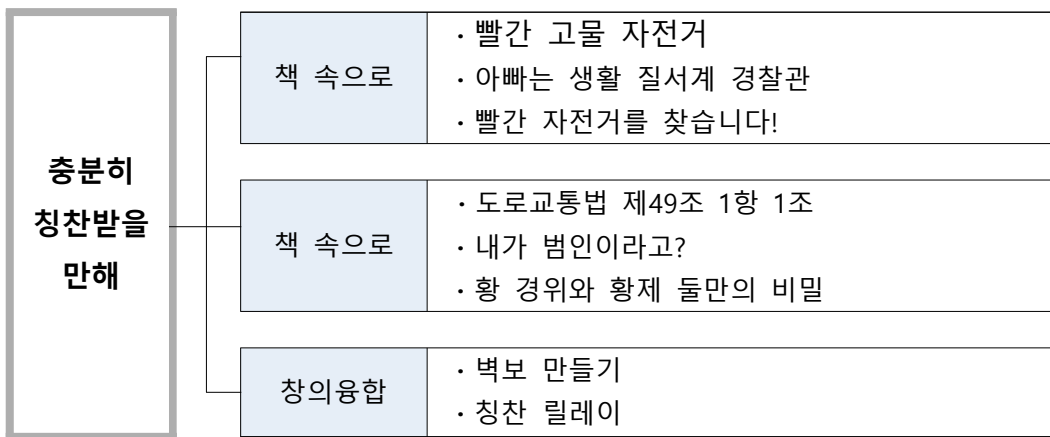
충분히 칭찬받을 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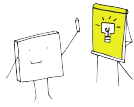
- * 글 : 임서경
- * 그림 : 시은경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45쪽
- * 대상 : 초등학생

· 책 소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해』는 일등을 하거나, 큰 상을 받는 등과 같은 거창한 일을 하지도 않아도 생활 속 작은 약속을 잘 지키므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밝은 세상이 되게 노력하는 가장 칭찬받을 만한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예요. 우연히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는 고물 자전거를 주웠다가 도둑으로 몰린 뒤, 생활 질서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황제이, 경찰을 꿈꾸는 그래서 지금부터 생활 질서를 잘 지키며 생활하는 황로이, 언제나 밝은 얼굴로 친구를 배려하는 최지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지요. 거창하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충분히 칭찬받을 만해》 책 표지와 제목을 통해 책의 내용을 상상해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 보세요.

2.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 (3~4) 《충분히 칭찬받을 만해》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공부 일등이 아닙니다.

큰 상을 받는 등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가장 칭찬받을 만한 어린이를 소개합니다.

안전 지킴이 황제이 어린이

배려 짱 최지필 어린이

미래 경찰 황로이 어린이

왜 가장 칭찬받을 만하냐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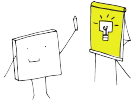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밝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뛰어난 일을 해내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해!

3. 뒤표지에는 칭찬받을 만한 세 명의 어린이가 나오는데요. 이 어린이들은 왜 칭찬받을 만하다고 했나요?

4. 나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빨간 고물 자전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굴빛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었다. 송골송골 이마에 맺힌 방울이 간질간질했다. 나는 손등으로 땀을 훔쳤다. 학원에 안 가는 날이라 가현이가 사는 마을에서 놀았다. 오늘 같은 날은 마음도 달뜨고 얼굴도 달뜬 날이다.

(나) 나는 자꾸 웃음이 나왔다. 가현이와 뛰어놀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난다. 단짝인 가현이는 3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는데 4학년에도 같은 반이 되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기분이 좋으면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다.

(다) “야, 황제! 어딜 그렇게 뛰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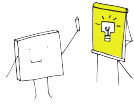
같은 반, 같은 동네 사는 최지필이다. 지필이는 항상 내 이름 마지막 ‘이’ 자를 빼고 ‘황제’라고 부른다. 그 덕분에 아이들이 나를 더 놀린다. 무슨 황제가 그렇게 까부냐는 등, 공부는 왜 그리 못하냐는 등.

(라) “아빠가 우리에게 매일 이야기하잖아. 절대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동생은 양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거라니까, 내 말 못 알아듣니? 너 내가 누구 거 흠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한다.”

1. (가)의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의 ‘달뜨다’라는 말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조금 흥분된다는 뜻입니다. ‘달뜨다’의 의미를 살려 문장을 지어 보세요.
2. (나)의 밑줄 친 부분처럼 기분이 좋아서 하늘을 나는 것 같았던 적이 있나요? 나의 경험을 적어 보세요.
3. (다)에서 지필이는 제이를 ‘황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친구들이 부르는 나의 별명이 있나요? 내 별명에 대해 써 보세요.
4. (라)에서 동생 로이는 누나 제이에게 왜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나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아빠는 생활 질서계 경찰관

1. 다음은 엄마, 아빠의 방귀 전쟁 다툼을 들으며 제이가 한 생각입니다. 방귀와 관련된 재미난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상상을 했는지 적어 보세요.

이불 속에서 자전거 꿈을 생각하다가 엄마의 말에 웃음이 푸 터졌다.
방귀도 잠을 자나 안 자나 생각해 보았다.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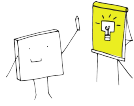
(가) 동생은 내 말에 화내지 않고 웃었다. 웃으니까 더 기분 나빴다. 엄마 아빠는 동생에게만 친절하다. 부모님에게 사랑과 칭찬만 받는 동생은 늘 웃는다. 나와 동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그렇지 않다.

(나) “황제이! 어른이 손가락 들지도 않았는데 누가 버릇없이 먼저 젓가락질하는가?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빠가 언성을 높였다.

“식사 예절, 어른이 먼저 드신 후에 아이들이 먹는다. 소리 내어 먹지 않는다.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2. 제이는 부모님이 왜 자신과 동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3. 글 (나)의 식사 예절에 추가해야 할 예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집의 식사 예절을 생각하며 써 보세요.
4. 우리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절이 있나요?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빨간 자전거를 찾습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는 횡단보도를 두 개 건너야 한다. 지각할 것 같은 날은 신호 대기가 무척 길게 느껴진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단횡단하기 일쑤다. 그걸 아는 동생은 늘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동생이 누나를 잘 돌봐야지. 누나의 보디가드는 황로이야.’

아빠가 이렇게 말한 후부터 동생은 나를 감시했다. 감시한다고 하면 아니라고 펄쩍 뿜게 분명하다. 보호라고 하겠지.

(나) “가현아, 어제 우리 집에 오다가 너희 마을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고물 자전거 주웠다. 그거 고물 같아 보여도 썩썩 잘 나가더라고. 그래서 집에 빨리 왔지. 근데 로이 녀석이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는 잔소리를 늘어놓는 통에 내가 무슨 자전거 도둑이라고 된 것 같았다니까.”

나는 설 틈 없이 가현이에게 자전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제이야, 혹시 빨간색 자전거 아니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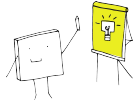
“가현아, 너 어떻게 알았어?”

“학교 오는 길에 전봇대에 붙어 있는 벽보를 봤거든. 빨간 자전거를 찾는다고 써 있었어.”

나는 가현이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정말? 에이 설마 어떤 사람이 쓰레기장에 버린 그 고물 같은 자전거를 찾을까? 혹시 새 자전거 찾는 거 아닐까? 내가 주워 온 거 말고.”

1. (가)에서 학교에 지각할 것 같을 때 제이가 빨리 가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 학교에 빨리 가기 위해 제이가 선택한 방법은 동생 로이가 못마땅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빨간 자전거를 찾는다는 벽보를 보았다는 가현이의 말이 믿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비를 보고 있으니 어렸을 때 동생과 놀이터에서 놀던 때가 떠올랐다. 그날도 오늘처럼 소나기가 내렸다. 엄마 퇴근을 기다리면서 미끄럼틀과 그네를 타며 신이 나게 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였다. 동생과 나는 비에 옷이 훌쩍 젖었다. 그런데도 둘이 깔깔거리며 비를 피하지 않고 비가 몸을 다 적실 때까지 놀았던 기억이 났다. 그날 우린 둘 다 감기에 걸려 며칠을 앓았다. 그렇지만 나는 비를 맞으며 놀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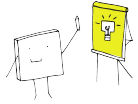
(나) “아빠, 자동차가 물 튀기고 가는 것도 죄예요?”

나는 궁금해서 아빠에게 물어보았다.

“응.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조, 운전자 준수 사항에 의하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것을 위반했을 시 범칙금 2만 원에 해당하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의미인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배려 없이 운전하는 게 그게 문제야.”

(다) “그래서 아빠가 매일 귀가 났도록 우리 제이, 로이한테 생활 질서, 예의, 배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배려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질서를 무너뜨리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 가거든.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고.”

1. (가)에서 제이는 비를 맞으며 동생과 놀았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놀아본 기억이 있나요? 비와 관련된 좋았던 경험을 적어 보세요.
2.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주는 것처럼 배려 없는 운전자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나요? 고쳐져야 할 운전 문화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 아빠가 제이와 로이에게 생활 질서, 예의, 배려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⑤ 내가 범인이라고?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자전거에 탄 채 신호가 빨리 바뀌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흰색 자동차 운전하는 아저씨가 창문을 내리더니 고개를 내밀어 나를 쳐다보았다.

“얘야, 횡단보도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해.”

아저씨 목소리가 우리 아빠 목소리랑 비슷했다. 왜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틈만 나면 잔소리일까? 왜 남의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버릇없다고 했을 거다. 어른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참견도 잘한다.

(나) “빨간 자전거를 찾습니다! 집 앞에 있던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자전거를 보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000-1234-5678”

벽보를 보고 지필이가 소리 내어 읽었다. 지필이는 벽보를 읽고 나서 나 한 번, 자전거 한 번, 나 한 번, 자전거 한 번 쳐다보았다.

“야, 뭘 그렇게 위아래로 쳐다봐? 내가 흠치기라도 한 줄 아니?”

지필이가 흠친 거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도둑이 제 발 저리듯 말을 하다니.

(다) 글씨도 삐뚤삐뚤, 그림도 삐뚤삐뚤했다. 나는 벽보를 보니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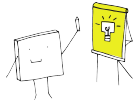
“나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는 거 주운 거야. 저기 그려져 있는 저 자전거는 완전 새것이잖아?”

지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이 자전거랑은 완전 다른데.”

가현이와 내 생각이 맞았다. 내가 주운 자전거가 아니었다. 자전거 그림을 보니 더 확신이 섰다. 자전거 그림은 새 자전거였기 때문이다.

1.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것처럼 자전거 교통 규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교통 규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 보세요.
2. (나)의 밑줄을 친 부분 속담의 의미를 살려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3. 지필이와 가현이, 그리고 제이는 벽보에 그려진 자전거를 보고 주운 자전거가 벽보 속 자전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⑥ 황 경위와 황제 둘만의 비밀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런데 아저씨,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걸 훔친 게 아니고,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는 걸 주운 건데도 죄가 되나요? 아까 경찰 아저씨가 형법 360조 점유 이탈 뭐라 뭐라고 하시면서 징역, 벌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궁금한 걸 지필이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빠에게 물었다. 나는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에 아빠를 쳐다볼 수 없었다.

“그래. 질문 잘했다. 원래는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방치해놓은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버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야. 이번 자전거 사건은 알고 보니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너무 낡아서 그냥 쓰레기장에 버린 것 같더라고. 그걸 제이가 발견하고 탔던 거지.”

(나) 아빠가 몸을 낮춰 나와 키를 맞췄다. 소리소리 지르고 혼낼 줄 알았는데 아빠는 나를 이해해 주었다.

“내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에 절대 손대지 않기!”

눈물 섞인 내 목소리가 나를 더 슬프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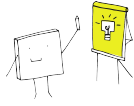
“그래, 됐어. 아빠는 제이를 믿어. 이건 우리 황 경위와 황제 둘만의 비밀이다.”

엄마 얼굴을 또 어떻게 보나 걱정이 산더미였다.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말해 주니 위로가 되었다. 아빠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황 경위와 황제 둘만의 비밀이 생겼다.

1. 버려진 물건이라도 함부로 주워서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나)에서 아빠를 생각하는 제이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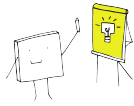
3.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이해받고 위로를 받았던 일이 있나요? 어떤 일이었는지 적어 보세요.



독서 후 창의융합_ ①벽보 만들기

※ 《충분히 칭찬받을 만해》에서 제이는 자신이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빨간 자전거를 찾는 벽보를 보았지만, 자신이 주워온 자전거와 벽보 속 자전거는 다른 모습이어서 다른 자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으려면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까요? 자전거를 찾는 벽보를 다시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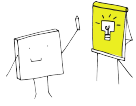
글씨도 삐뚤삐뚤, 그림도 삐뚤삐뚤했다. 나는 벽보를 보니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나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는 거 주운 거야. 저기 그려져 있는 저 자전거는 완전 새것이잖아?”
지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이 자전거랑은 완전 다른데.”
가현이와 내 생각이 맞았다. 내가 주운 자전거가 아니었다. 자전거 그림을 보니 더 확신이 섰다. 자전거 그림은 새 자전거였기 때문이다.



독서 후 창의융합_ ② 칭찬 릴레이

※ 《충분히 칭찬받을 만해》에서 제이 가족은 한 사람씩 칭찬 릴레이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칭찬할 점을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예시답안) 엄마가 만들어 주신 샌드위치는 너무 맛있어요.	⇒		⇒	
	⇒		⇒	
	⇒		⇒	
	⇒		⇒	
	⇒		⇒	
	⇒		⇒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 표지 속 7명의 등장인물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걸까? 예) 맨 위에 4명의 사람은 가족 같아 보여. 예) 아래쪽 가운데 곱슬머리 친구는 심술궂은 느낌이 들어. 2. 예시 답안)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내 일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밝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했기 때문이다. 4. 예시답안)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주워서 버리는 행동이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3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시 답안) 내일 놀이동산에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달떠서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2. 예시 답안) 짝꿍을 바꾸는 날 제비뽑기를 했는데 좋아하는 친구와 짝꿍이 되어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3. 예시 답안) 이름: 황유주/ 이름의 초성이 ㅇㅈ이라서 '인정'이라고 불러요. 4. 예시 답안) 아빠가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누나가 누구 물건인지 모를 빨간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4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시 답안) 방귀도 가스니까 라이터를 켜면 불이 붙을까? . 어항에 방귀를 꾸면 독가스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을까? 등등 2. 예시 답안) 부모님이 동생에게만 친절한 것 같아서. 제이의 행동에는 잔소리가, 로이의 행동에는 칭찬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3. 예시 답안) 식사 중에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는 고개를 돌리고 입을 가려요.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해요. 먹고 난 그릇은 스스로 정리해요. 4. 예시 답안) 어디서든 어른을 만나면 큰소리로 인사를 잘해야 한다.
5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시 답안) 횡단보도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무단횡단을 했다. 2. 예시 답안) 무단횡단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행동이고 도로 위에 차들은 신호에 따라 움직여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3. 예시 답안) 제이가 주문한 자전거는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고 고물과도 같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6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시 답안) 우산을 쓰지 않고 친구와 놀고 싶어서 우비를 입고 나가 논 적이 있다.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빗줄기 아래에 서 있어 보기도 하고 물웅덩이에 뛰어들어보기도 했다. 옷도 더러워지고 금세 추워져서 오래 놀진 못했지만, 아주 재미있었다. 2. 예시 답안) 주차 구역이 아닌 골목에 아무렇게나 주차해서 걷기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경적을 울

	<p>리지 않아도 될 상황에 경적을 울려 깜짝 놀란 경험이 있다.</p> <p>3.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려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질서를 무너뜨리면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p>
7쪽	<p>1. 예시 답안)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사용해야 한다.</p> <p>2. 예시 답안)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나는 엄마와 눈이 마주친 순간 마음이 뜨끔했다.</p> <p>3. 예시 답안) 제이가 주운 자전거는 고물 같아 보일 정도로 낡았지만, 벽보에 그려진 자전거는 새 자전거였기 때문이다.</p>
8쪽	<p>1. 예시 답안) 주운 물건이라고 해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면 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과 같아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버려진 물건이라고 해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p> <p>2. 예시 답안) 빨간 자전거 사건으로 제이는 아빠가 자신을 혼내며 소리를 지를 것으로 생각해서 슬프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는데 제이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주어서 위로되고 안심이 되었다.</p> <p>3. 예시 답안) 운동회에서 반 대표로 달리기하게 되어 열심히 연습했는데 시험 당일 넘어지는 바람에 꼴찌를 하고 말았다.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친구가 다가와 넘어진 곳은 괜찮냐고 살펴봐 주고 넘어졌어도 끝까지 뛰는 모습이 멋있다고 이야기해주어서 위로되었다.</p>
9쪽	(가이드) 새것처럼 보이는 자전거가 아니라 낡은 자전거의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0쪽	(답안 생략)